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29호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칼럼

#### 스포츠 사업 확대와 아마추어 종목 성장의 기대

여준형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 무하마드 알리 스포츠 인도주의상

#### 은퇴 앞둔 MLB전설 푸홀스 '알리 스포츠 인도주의상' 수상

임순현 연합뉴스 기자

### 스포츠 지도자들의 고용불안

#### K리그 유소년팀 지도자는 근로자일까

여고은 매일노동뉴스 기자

### 스포츠 사건사고

#### 이번엔 음주운전 사고, 바람잘날없는 빙상계

김희준 뉴시스 기자

#### 또 체육계 폭력...중학교 운동부 코치 특하면 욕설·손찌검

양윤우 머니투데이 기자

### 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연구

#### 체육회 반복되는 '진흙탕 선거' 손보나...체육진흥공단 연구용역 착수

현지용 CEO스코어데일리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스포츠 사업 확대와 아마추어 종목 성장의 기대

여준형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얼마 전 토트넘 대 K리그 올스타와의 시합이 있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EPL리그 팀이다. 한국 선수가 소속된 팀인데다 이전 시즌에서 동양인 최초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까지 차지한 덕분에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은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공항 입국부터 팬들로 가득 찼고 연습과 팬 사인회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시합 장소인 상암 경기장은 몇 년 만에 매진을 이루었다. 이번 스포츠 이벤트는 몇 년 만에 대 성공한 스포츠 이벤트였다.

이런 성공한 이벤트에 유일한 논란은 바로 중계 채널이 유료 OTT 플랫폼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당연시 되던 공중파 중계가 아니라 유료 OTT 플랫폼에서 단독 중계를 했으니 어쩌면 논란은 당연하다. 2007년 방송법 개정으로 생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법 때문인데, 국민적 관심이 되는 스포츠 경기 및 행사가 공영방송을 포함한 무료 방송사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방송권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시청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공중파와 함께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겼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바로 '스포츠와 자본' 문제와 '접근성'이다.

지금 엘리트 스포츠가 축소되고 있다. 물론 이건 엘리트 스포츠에서 계속 터져 나온 사건사고와 코로나 영향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성적에만 신경 쓴 나머지 종목에 대한 접근성과 이에 대한 기획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종목 단체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여러 SNS를 활용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경기일정 또는 경기결과 등 단순 내용만 전달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 채널로 중계를 하는 종목 단체도 있지만 그러한 노력에 비해 중계 수준이 낮아 보기 힘든 안타까운 단체도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자본과 마케팅의 문제다. 단순히 보이는 SNS 채널 활용에도 기획력이 필요하다. 스포츠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마케팅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결국 자본이 적절하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자기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보면 분명 없어지는 종목도 생겨날 수 있다.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 OTT 서비스 업체에서는 스포츠 중계권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

스포티비 나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스 리그, 미국 프로농구 등을, 쿠팡 플레이는 축구 국가대표팀 전 경기과 농구 월드컵을, 테니스 웨이브는 국내 프로야구리그 등의 중계권을 구매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중계권을 구매했다는 것은 스포츠를 투자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만큼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가 공중파 보다는 OTT 서비스에 익숙하고 이제 어떤 한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구독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중계권 구매가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야구, 축구, 농구 등 프로 스포츠 종목에 국한되어 있고, 아마추어 종목은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추어 종목은 중계는 고사하고 입장권마저 무료로 진행 되는 게 대부분이다.

중계나 팀 창단과 같은 선수환의 효과를 가져오려면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어 종목 자체의 질을 높이고 대회 질을 높여야 한다.

몇 해 전, 공중파에서 '씨름의 희열'이라는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다. 씨름은 예전에 각광받았던 종목이지만 현재는 비인기 종목에 속한다. TV 중계도 명절, KBS에서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선수 한 명 한 명을 다뤄주고 경기까지 각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 기획력 있는 방송 덕에 결과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방송이 인기를 끌자 점점 광고가 많아지고, 화면 속 선수들과 경기장의 비주얼이 달라졌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직접 씨름 대회를 찾아가고 자발적으로 팬클럽을 만들었으며 그렇게 선수 개인과 종목에 대한 주목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파생 효과도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씨름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획력 있는 방송 노출(방송국 자본 투입)-기업 자본 투입-수입 발생-종목 저변 확대의 선순환을 이뤄낸 것이다.

그 이후 방송사에서는 배드민턴, 탁구 등 여러 스포츠를 다루는 방송을 많이 기획했다.

얼마 전 럭비 리그에서 시합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나라에서 럭비는 아마추어 종목 중 하나라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이런 시도는 선수들의 사기와 종목의 가치를 높여주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다른 종목들도 럭비처럼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종목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어느 분야든 자본이 투입되면 파이가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로 국민들이 지쳐 있고 그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포츠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아마추어 비인기 종목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권 수익을 기대하고 중계권도 팔 수 있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야구 축구 농구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또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가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 MUHAMMAD ALI SPORTS HUMANITARIAN AWARD

## 은퇴 앞둔 MLB 전설 푸홀스 '알리 스포츠 인도주의상' 수상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미국프로야구(MLB)의 전설 앨버트 푸홀스(4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무하마드 알리 스포츠 인도주의상'을 받았다.

푸홀스는 21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에서 진행된 에스피상 시상식(ESPY Awards)에서 2022년도 무하마드 알리 스포츠 인도주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복싱계 전설' 무하마드 알리의 이름을 딴 이 상은 매년 소수자 인권 문제 등에 기여한 스포츠 선수를 선정해 수여된다.

원래 명칭은 스포츠 인도주의상이었지만 흑인 인권 문제 해결에 힘써온 알리가 2016년 사망하자 그를 기리기 위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에스피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ESPN은 푸홀스가 2005년 '푸홀스 가족 재단'(Pujols Family Foundation)을 설립해 다운증후군 환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푸홀스의 장녀 이사벨라도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푸홀스는 시상식에서 "매년 시즌이 끝나면 봉사하고 보답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것이 내가 기억되고 싶은 방식"이라며 "절대 잊지 못할 유산인 알리의 이름으로 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K리그 유소년팀 지도자는 근로자일까

최근 고용노동부가 프로축구단 유소년팀에서 10년 넘게 일한 감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감독이 제기한 퇴직금 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구단 운영사에 퇴직금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운영사측은 시정지시 이행기간인 지난 19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축구 유소년팀 지도자들과 구단 사이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프로팀 지도자들과 달리 훈련·지도 업무 외에도 학생선수 관리나 행정업무까지 떠맡는 경우가 많다.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단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노동청 '퇴직금 지급' 명령에도 구단 '묵묵부답'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이 지난달 30일 내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구단 감독·코치가 HDC스포츠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9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올해 7월19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수사단계로 전환됐다”며 “추가조사를 진행한 뒤 사업주에 대한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아이파크 15세 미만(U-15) 유소년팀 감독으로 일한 정민수(49·가명)씨는 2020년 12월 말 계약기간 종료시점 이틀을 앞두고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정씨는 운영사 관계자에게서 “1부에서 2부로 떨어져 전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일한 만큼 정씨는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위로금’ 명목으로 1천1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

정씨는 유소년팀 훈련·지도업무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U-12 감독을 하는 동안 구단이 지정한 학교에 방문해 ‘맥도날드 축구교실’ 수업도 해야 했다. 합숙하는 선수들 관리·감독을 위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운동장 섭외 같은 행정업무도 맡았다. 운동장 사용 신청부터 훈련일지까지 구단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운동장 무단사용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구단 직원 지시에 따라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지급을 명령한 것은 정씨가 사실상 구단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구단 운영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정씨의 싸움은 길어질 전망이다. 정씨는 <매일노동뉴스>에 “지도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 하루살이로 살면서 그 와중에 퇴직금도 받지 못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며 “구단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까지 떠맡게 되고 학교 팀보다 더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업무는 '학교운동부'처럼, 계약은 프로팀처럼

프로축구 유소년팀 지도자와 구단 간 퇴직금 분쟁은 정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아이파크 사건 이전 수원FC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발생해 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2019년 8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수원FC에 유소년팀 지도자에게 퇴직금,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스포츠 유소년 지도자는 학교운동부, 프로구단, 사설업체 소속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0월 발표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관계는 기간제 계약직이 70.7%로 가장 높았고, 계약기간은 '1년'(74.3%)이 가장 많았다. 프로구단 유소년 지도자는 훈련·지도 업무 외에도 합숙소 생활관리업무를 겸하거나 훈련·지도 관련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처럼 하는데 계약은 프로팀 지도자처럼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신분인 셈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퇴직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가 아니라, 프로구단 유소년 지도자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용역계약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다 이 과정에서 구단의 지휘·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큰 데도 '감독·코치'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운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스포츠평론가)는 "감독·코치들의 자부심 이면에는 비정기적이고 불안한 고용관계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며 "유소년 지도자 세 분류 모두 (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아) 근로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관행 탓에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노동청·노동위원회에 개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도 사건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아이파크와 수원FC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또 다른 지역 구단 유소년 지도자들은 '업무 재량'을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량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해선 안 돼”

지역 A프로구단에서 지난해 12월 유소년팀 감독·코치 4명이 한꺼번에 계약종료로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지만 지난 5월 기각됐다.

2015~2020년 사이 해당 구단에서 유소년팀 감독·코치로 일을 시작한 이들은 1년 단위로 훈련·지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업무는 정민수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훈련·지도업무뿐만 아니라 숙소 사감업무, 예산처리 등 행정업무까지 도맡았다. 이들은 구단에서 주관하는 주간·월간회의에 참여해 업무보고를 하고, 구단 지시에 따라 행사에 동원되거나 축구대학 진행 같은 구단이 요구한 업무를 수행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코치로 일한 30대 김종현(가명)씨는 <매일노동뉴스>에 "구단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했다"며 "원해서 나가게 된 것도 아닌데 퇴직금도 프리랜서라서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노위는 "유소년 선수에 대한 훈련·지도 및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 재량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 4명은 중노위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측을 대리한 하은성 공인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사용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라 해도 그것이 업무 자체의 특성이나 전문직종의 상대적 자율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노동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계약서에 지도자들의 업무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라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 노무사는 "재정적 문제로 프로팀과 달리 지원업무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하는 업무만 보면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감독·코치가 선수 선발 등 재량권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노위는 e스포츠 프로게임단 감독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도 했다.

프로축구연맹 "구단마다 상황 달라"  
“문제로 인식하는 문화부터 형성해야” 지적도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자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프로축구연맹 차원의 대책은 없는 상태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고용형태는 회사 차원의 문제이지 축구적(축구와 관련된)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된 지침까지는 없다"면서도 "'위임계약 체결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정운수 교수는 "개별적으로 권리구제를 다뤄야 하는 것은 스포츠계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법적인 디테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자성이 훼손되거나 권리가 침해될 때 조직화든 교육이든 연대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부터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이번엔 음주운전 사고, 바람 잘 날 없는 빙상계

뉴시스  
김희준 기자

2022.07.15

빙상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에는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스타인 김민석(성남시청)이 대표팀 훈련 중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을 하다 선수촌 내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빙상계에서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폭행, 성추행, 짬짜미라 부르는 승부조작, 선수촌 내 음주,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종류도 다양하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직후에는 '짬짜미 논란'이 불거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는 장비 담당 코치가 성추행 의혹으로 퇴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2015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A군은 외부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들어와 추태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쇼트트랙 선수 5명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해 3월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일부가 합숙훈련 중 몰래 숙소를 빠져나가 술을 먹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직전에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심석희(서울시청)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후 재판을 통해 조 전 코치가 심석희에게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2019년 2월에는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A가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선수를 만나기 위해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동에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발각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 5명이 태릉선수촌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잠시 잠잠했던 빙상계에 올해 또 파문이 일어났다.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스타인 김민석(성남시청)이 다른 곳도 아닌 선수촌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 김민석은 동료 선수 3명과 22일 밤 술을 마신 뒤 동료 선수들을 태우고 진천선수촌 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앞서 김민석과 정재웅(성남시청), 정선교(스포츠토토), 정재원(의정부시청)은 진천선수촌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김민석의 차량을 타고 선수촌으로 돌아왔다. 당시 운전자가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숙소에서 쉬던 김민석과 정재웅, 정선교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지윤(의정부시청)의 연락을 받고 웰컴센터로 이동해 시간을 보내다가 숙소로 돌아오면서 사고를 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2연속 동메달을 딴 김민석의 음주운전 사실은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다른 선수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성원들의 안일한 인식이 빙상계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성적 지상주의' 속에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었다.

2016년 미성년자 음주로 물의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상비군 선수들에게 해당 시즌 훈련 제외와 사회봉사 활동 50시간의 조치만 내렸다. 2019년 여자 숙소를 무단 출입한 선수는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2019년 선수촌 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5명은 자격정지 2개월만 받았다.

사건사고로 물의를 빚은 선수들은 가벼운 징계를 소화한 뒤 빙판에 돌아왔고,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보란듯이 활약했다. 이를 본 선수들에게 '학습 효과'가 있을리 만무했다. 선수들은 문제를 일으켜도 선수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년 넘게 관리단체였던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0년 말 윤홍근 회장을 새롭게 선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지난해 초 각종 사건사고를 근절하겠다고 '연맹 운영 자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시 '엄격한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해 인권 침해 및 각종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을 비롯한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번 징계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또 솜방망이 징계가 되풀이된다면 선수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힘들다.

빙상연맹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된 선수들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일단 27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 또 체육계 폭력... 중학교 운동부 코치 특하면 욕설·손찌검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선수들에게 욕설과 꿀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일삼은 여성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3년간 울산지역 한 중학교 인라인스케이스팀을 지도했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적이 부진하면 수시로 욕설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 체육회 반복되는 '진흙탕 선거' 손보나... 체육진흥공단 연구용역 착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다.

2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소속 연구기관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부경대학교에 위탁해, 현재 연구 결과 발간을 앞두고 있다.

해당 연구는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것을 이유로 비공개 할 방침이다. 다만 주요 내용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와 그 현황, 문제점을 분석해 선거제도 및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 도출로 구성돼 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문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와 선수 지원사업, 올림픽·패럴림픽 사무 등을 총괄하는 기구다. 양 기관의 회장 선거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 투표 및 문체부 장관 승인으로 치러진다.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식이다.

올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각각 4427억원, 900억원에 달한다. 대한체육회만 놓고 보면 매년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종목별 가맹단체에 배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체육계 예산이 갈리다 보니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때 마다 매번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밀어주기 나 횡령 의혹, 후보자간 극심한 상호비방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체육회 회장의 권한이 막강한 이유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헌장 때문이다. 헌장은 각 국가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외압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IOC로부터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 자격을 정지 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올림픽위원회 기관인 대한체육회, 특히 회장은 사실상 정부 예산부터 체육회 정책까지 정부나 외부의 눈치를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공단의 이번 연구는 공정한 회장 선거 개선이란 명분 외에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 가진 권한에 대한 일부 조정까지도 포함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연구결과를 실제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회장 선거에 대한 조정 시도는 IOC가 보장하는 체육회 독립성에 대한 침해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예산을 줄이는 등 예산 조정 시도를 통한 간섭도 대한체육회 산하 600만명 이상의 선수와 체육인 등 체육계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회장선거 제도에서) 부족한 점 등을 보고 연구를 의뢰했다"면서 "차후 선거가 임박할 땐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반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 계기나 배경, 효과 등에 대해선 "아직 수정작업 중이라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체육진흥공단,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5063100007?input=1195m>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샤워장 설치·헬스 기구 23점 교체 새단장

<https://www.news1.kr/articles/?4752533>

50억대 보조금 횡령...전 창녕군 체육회 직원 징역형 선고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412480383272>

창원특례시 시민화합 모은 생활체육대축전 '눈길'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482>

대한장애인체육회 2022년도 제7차 직원 공개채용 실시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07250100180820011365&servicedate=20220725>

음주 측정기 설치해야 하나...체육회, 선수촌 관리에 골머리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4033300007?input=1195m>

“초등학생은 체육복 안 속옷 금지” 日 교칙 논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3500068&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3500068&wlog_tag3=naver)

제자들 성추행한 부산 체육교사, 징역 3년

<http://www.knn.co.kr/261671>

목포시체육회 직원 공금 4억8천만원 횡령 의혹...경찰 수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1078100054?input=1195m>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